

끊어 읽기 오류 분석을 통한 영어 읽기 지도 방안 연구

이진미, 박한상
홍익대학교 영어교육과

A Study of Pause Positions in Korean Students' English Reading

Jin Mi Lee, Hansang Park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Hongik University
E-mail : jinmir@gmail.com, phans@hongik.ac.kr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pause positions of Korean students' reading of an English script. 12 natives speakers of English and 18 Korean students were asked to read *The North Wind and the Sun*. The common pause positions were determined by examining the pauses of the native speakers' readings. Korean students were asked to mark pauses on a script. And then they were trained to put pauses as native speakers of English do. Although some errors have been corrected after the training, others have not been corrected in Korean students' readings. Korean students made fewer errors in marking on the script than in reading the script. They seem to know where to put pauses, but lack of practice makes it difficult to put pause in the right positions when they read. That suggests that teachers should continue to teach students where to put pauses in their reading or speaking English.

I. 서론

말을 하거나 글을 읽을 때 문장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의미 파악이 힘들거나 뜻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어에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처럼 모두 붙여 읽거나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처럼 끊어 읽으면 의미 파악이 힘들어지거나 뜻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는 영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영어에서는 끊어 읽기가 지켜지지 않으면 리듬이 깨져서 의미 파악이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리듬 및 억양을 구성하는 단위는 구분되어야 하며 적절한 곳에 휴지가 있어야 한다.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에 있어서 듣기나 말하기에 언어의 분절음뿐 아니라 강세, 리듬 억양과 같은 초분절적 요소를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다.[1] 이렇게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영어 교육에서 끊어 읽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약 21%인 9권, 고등학교 교과서의 약 37%인 19권에서만 끊어 읽기를 다루고 있다. 끊어 읽기를 다룬 교과서도 거의 설명이 없이 끊어 읽기를 표시한 예문이나 연습 문제만을 제시하고 있고, 교사용 지도서의 끊어 읽기에 관한 설명도 일관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 학생들이 실제 읽거나 말하기에서 끊어 읽기를 제대로 배우고 이를 실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학생들의 영어 읽기를 녹음하여 학생들의 끊어 읽기 실태를 파악한다. 그리고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원어민 화자의 영어 읽기를 기준으로 영어 끊어 읽기의 기준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한 후 오류의 개선 정도를 살펴보았다.

II. 본론

2.1. 1차 실험

본 실험에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12명의 원어민 화자와 한국 학생 18명이 참가하였고, 읽기 자료로는 *The North Wind and the Sun*가 사용되었다.

우선 원어민 녹음을 통해 이들의 읽기의 공통점을 확인해 보았다. 화자별로 문장 길이나 끊어 읽기 횟수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전체의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 화자들이 국적, 나이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곳에서 끊어 읽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학생 교육용 파일 작성을 위해 실험에 참가한 원어민 화자 중 읽기 속도, 끊어 읽기 횟수 등이 평균에 가깝고 미국 중서부 출신인 화자 4명을 선정하여 재녹음을 실시하였다. 원어민 화자들이 발화한 문장 및 문장 간 휴지의 길이는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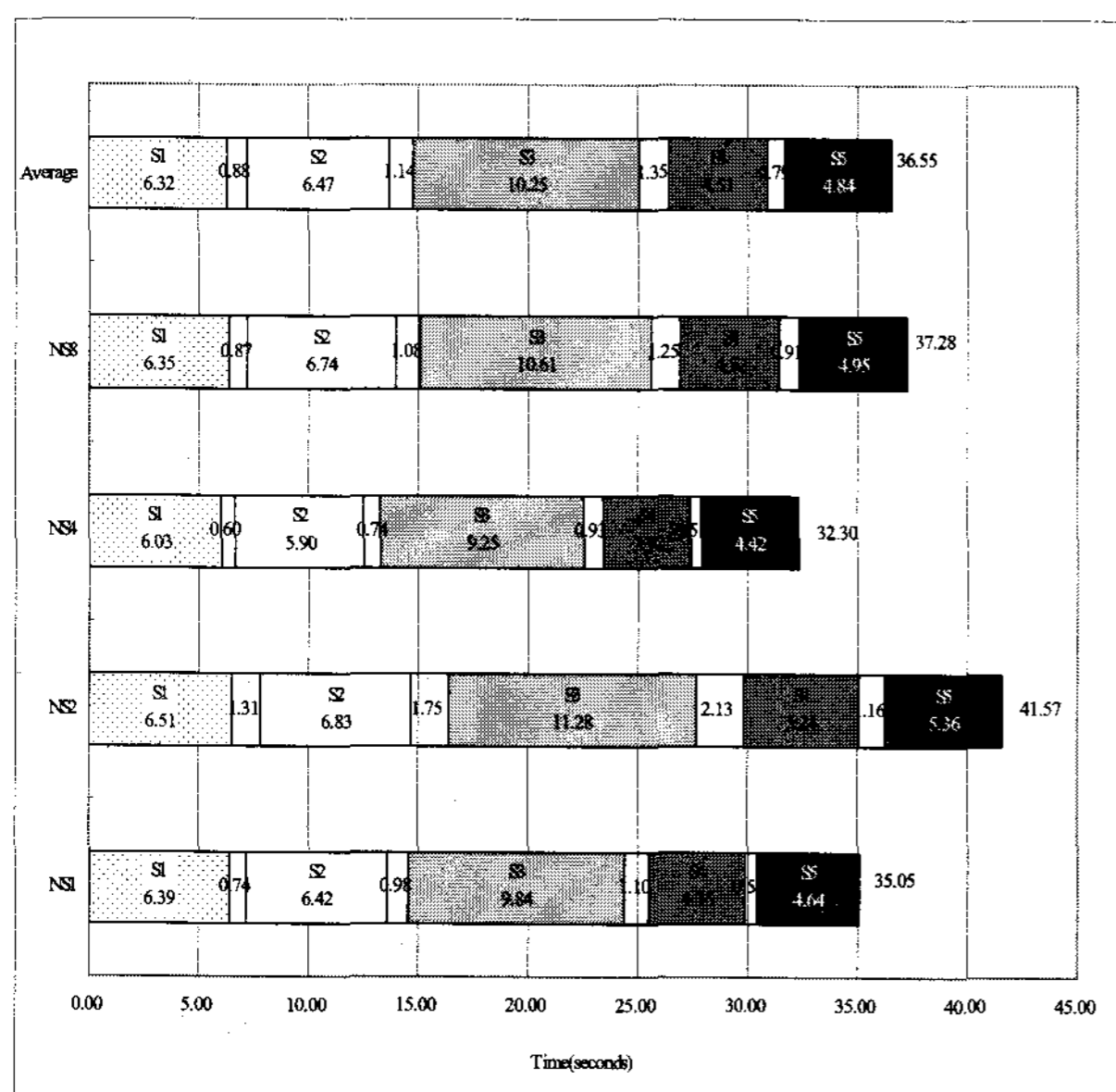


그림 1. 원어민 화자의 휴지 위치와 길이

관찰 결과 모두가 공통으로 끊어 읽은 곳(P4)이 10곳, 2명이 같이 끊어 읽은 곳이 4곳(P2)으로 나타났다. 한국 학생 실험에서는 학생들의 영어 읽기 실태 파악을 위해 영어 지문에 대한 특별한 지도 없이 녹음을 진행하였다. 녹음은 학교 방송국 내의 녹음실에서 1명씩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음성 파일을 분석할 때 끊어 읽기 오류는 원어민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였고, 종류는 E1과 E2 두 가지로 나누었다. E1은 원어민 중 아무도 끊어 읽지 않은 곳에서 끊어 읽은 경우이다. E2는 원어민 4명이 모두 끊어 읽은 곳에서 끊어 읽지 않

은 경우이다. 분석 결과 대다수 학생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2. 교안 작성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끊어 읽기에 관해서는 교과서 등에서 제시한 일관된 기준이 없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한국인 학생들 교육 시 끊어 읽기는 1차 실험 중 최종 녹음에 참가한 원어민의 끊어 읽기를 기준으로 오류를 판단하고, 지도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우선 교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최종 녹음에 참가한 원어민 4명이 공통으로 끊어 읽은 10곳(P4)을 기준으로 스크립트를 11개로 나누었다. 다섯 번째 문장의 경우 원어민 4명이 공통으로 끊어 읽지는 않았으나 한 문장 전체를 한 번에 읽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원어민 2명이 끊어 읽은 곳을 기준으로 2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을 보여주기로 하였다.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는 위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끊어 읽기 원칙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스크립트를 알맞게 끊어 읽을 수 있도록 규칙을 알려주고 연습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끊어 읽기가 리듬과 억양을 만드는 중요한 단위이고, 리듬 및 억양은 내용어의 강세를 제대로 알고 읽을 때 어떤 단어를 강조하여 읽는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영어 읽기 수업에서는 끊어 읽기뿐만 아니라 내용어의 강세, 경계 억양, 초점, 리듬 등을 모두 설명하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 전에 학생들의 끊어 읽기 인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스크립트에 끊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을 표시하게 한 후, 원어민의 음성 파일을 들려 주며 끊어 읽기의 기준을 설명하였다. 각 내용을 설명할 때는 교안과 Praat을 사용하여 원어민의 끊어 읽기 단위별로 시각적, 청각적 자극을 꾸준히 제시하였다. 이 때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장의 뜻도 구간 별로 설명하였다.

2.3. 2차 실험

2차 실험에는 1차 실험에 참여했던 한국인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본 실험은 영어 읽기 교육과 한국 학생들의 2차 녹음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2.2에서 설명한 교안을 이용하여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2차 녹음은 교육 당일에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녹음 환경은 1차 실험 시 학생 녹음 때와 동일했고 자료 분석도 1차 녹음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 결과, 스크립트에 표시한 끊어 읽기에서

실제 녹음 시보다 오류가 적게 나타났다. 2차 녹음의 경우 1차 녹음보다 오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큰 변화는 없었고, 스크립트에 표시한 끊어 읽기보다는 오류가 많았다.

III. 토론

그림 2는 원어민 화자(NSs)와 한국 학생들(NNSs)의 끊어 읽기 횟수의 평균값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1, 2차 녹음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끊어 읽기 횟수 평균이 원어민의 끊어 읽기 횟수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 그리고 학생들이 스크립트에 표시한 끊어 읽기 횟수는 원어민 평균보다 단지 5회가 많다. 이는 학생들이 대략 어떻게 끊어 읽어야 하는지 알고 있으나 실제 끊어 읽기에서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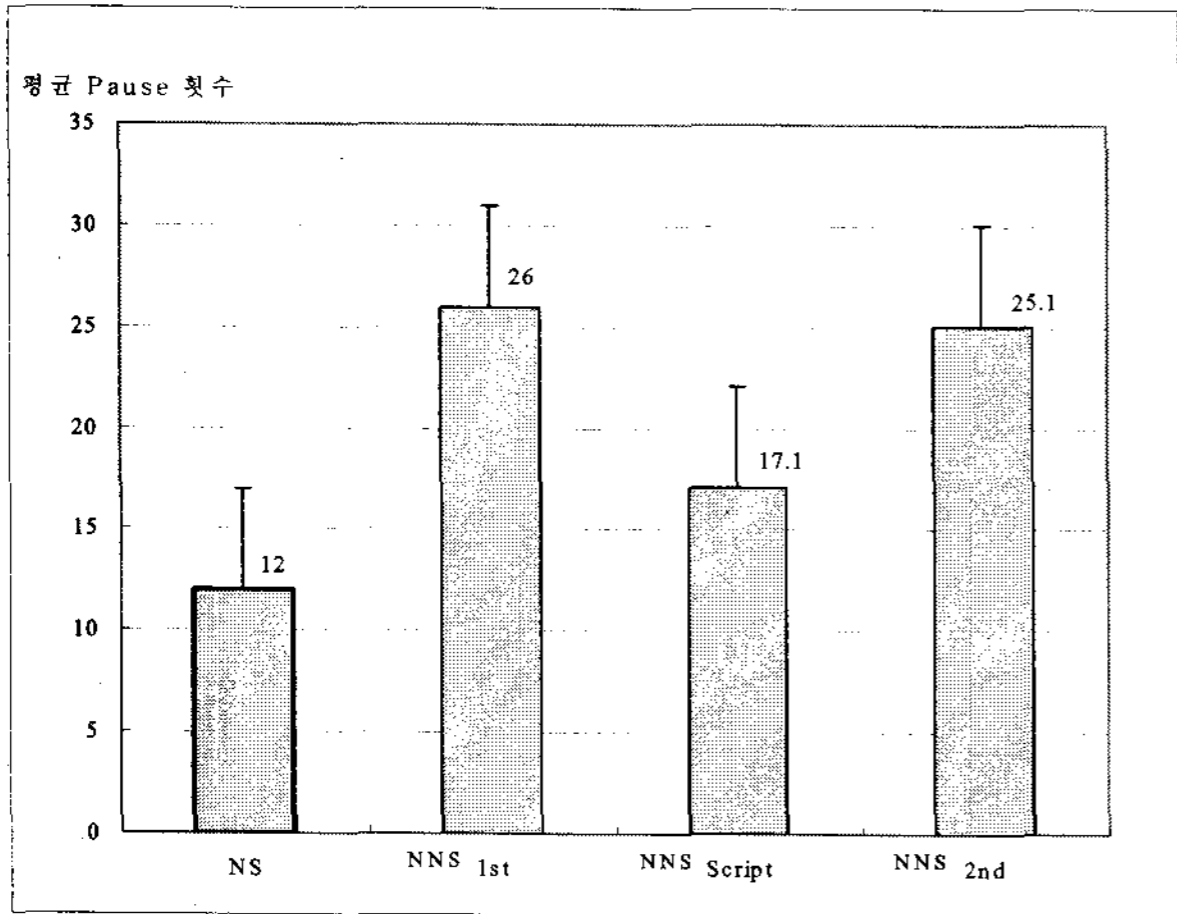


그림 2. 원어민과 한국 학생들의 끊어 읽기 횟수 평균 비교

아래의 그림 3은 각 실험별 오류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도 스크립트에 표시한 끊어 읽기에서의 오류가 실제 녹음 시 나타난 오류보다 훨씬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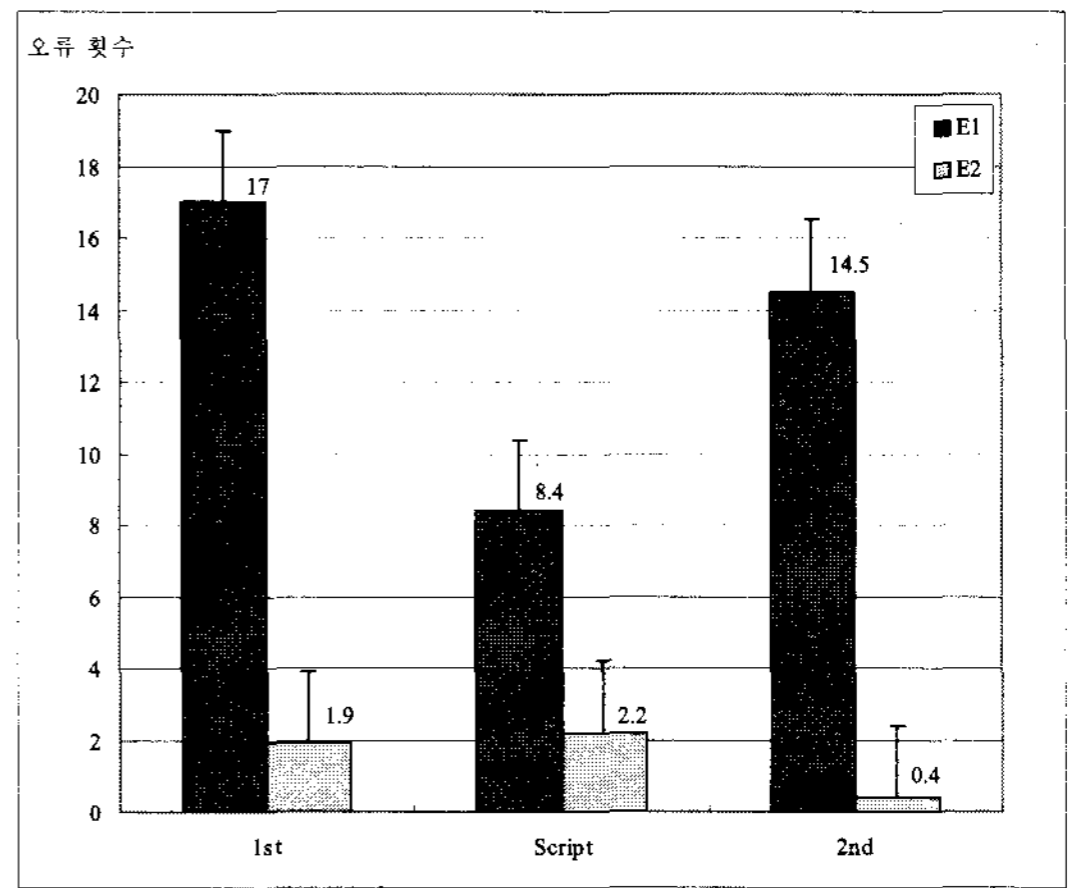


그림 3. 1, 2차 녹음 및 스크립트에 표시한 끊어 읽기 오류 유형별 평균 비교

E1은 교육 후인 2차 녹음에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1차 녹음과 큰 차이는 없었다. E2의 경우 1차 녹음과 스크립트에 표시한 끊어 읽기에서 나타난 오류의 횟수가 거의 동일하고 2차 녹음 때에는 E2 오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E1의 경우 단기교육의 교육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므로 꾸준한 교육과 연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 E2의 경우에서 단기 교육의 효과는 있었지만 학생들이 새로운 문장을 접할 때마다 끊어 읽어야 할 곳을 가르쳐 주기는 어려우므로 끊어 읽기를 꾸준히 교육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영어 능력에 따른 끊어 읽기 교육의 방향을 생각해 보기 위해, 영어 성적과 세 차례(교육 전, 교육 후, 스크립트)에 걸쳐 나타난 오류 횟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림 4는 교육 전 오류 횟수와 영어 성적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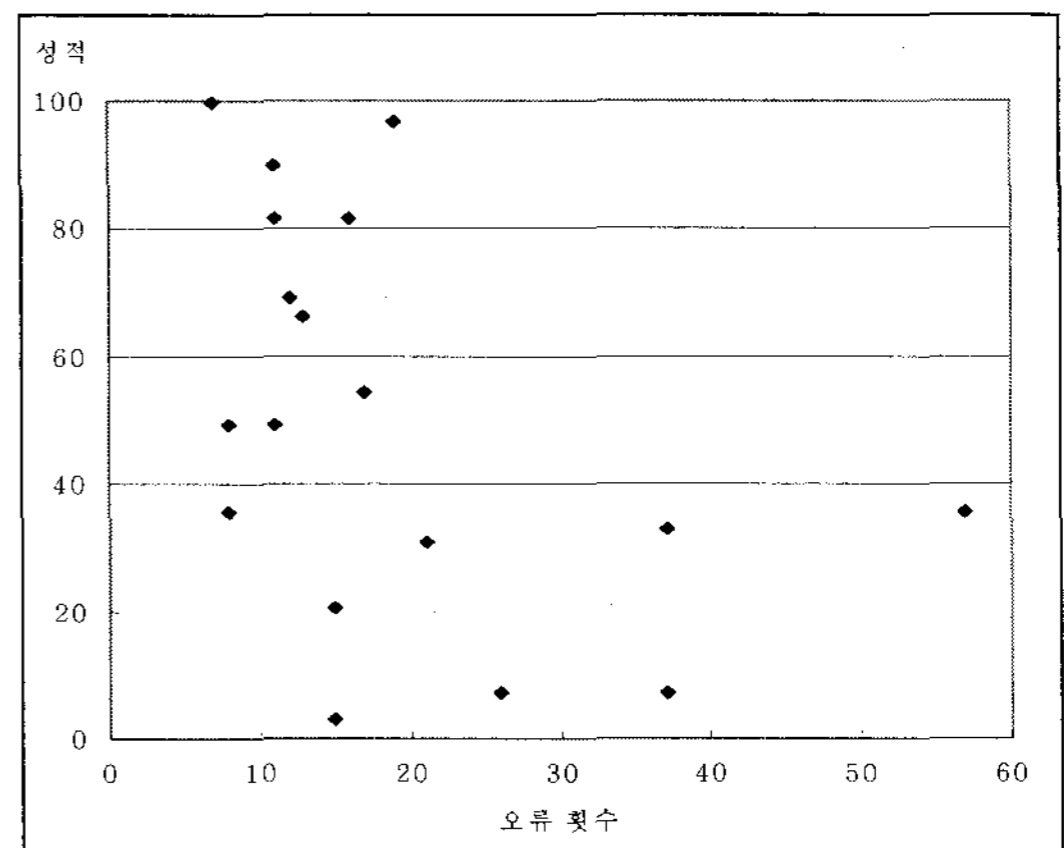


그림 4. 교육 전 오류 횟수와 영어 성적의 상관관계

성적과 끊어 읽기 오류 횟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

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r=-0.433$).

그림 5는 스크립트에 나타난 오류 횟수와 영어성적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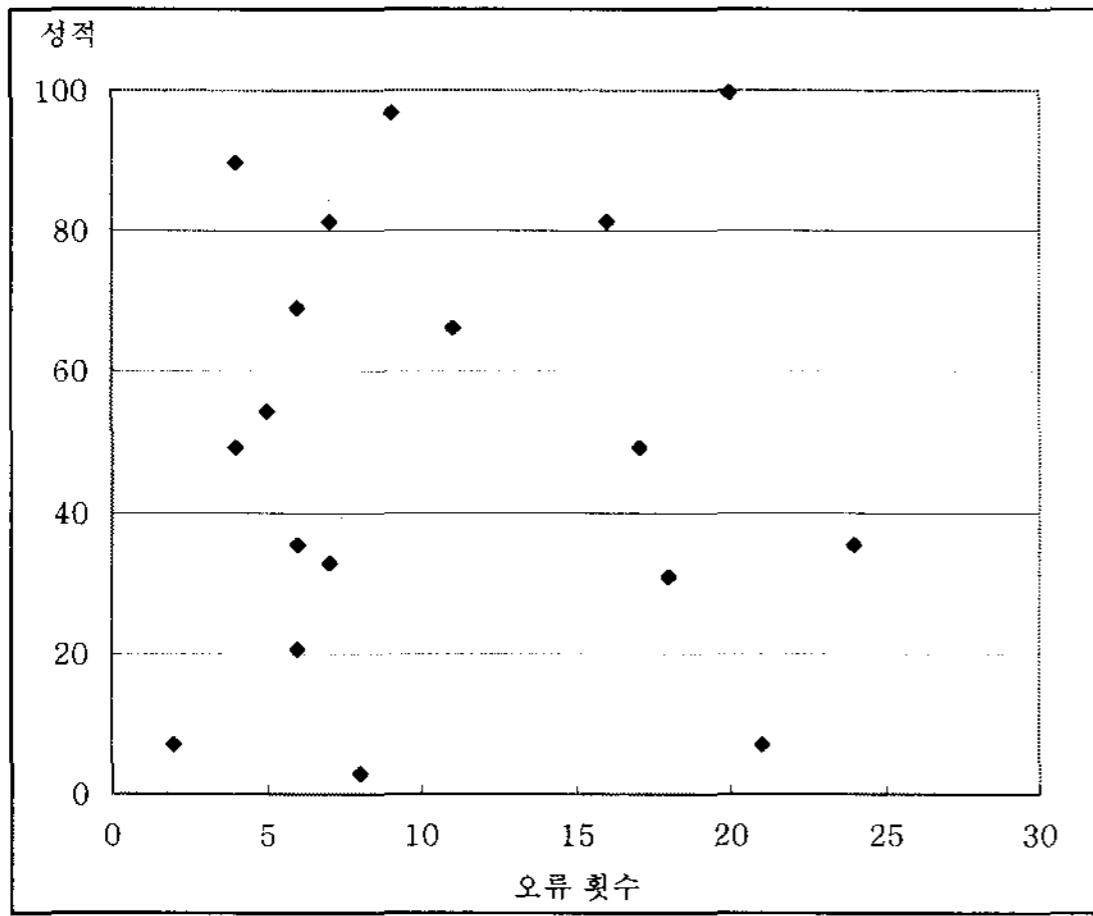


그림 5. 스크립트상의 오류 횟수와 영어 성적의 상관관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0.014$, $p<0.01$).

그림 6은 2차 녹음 시 나타난 오류 횟수와 영어 성적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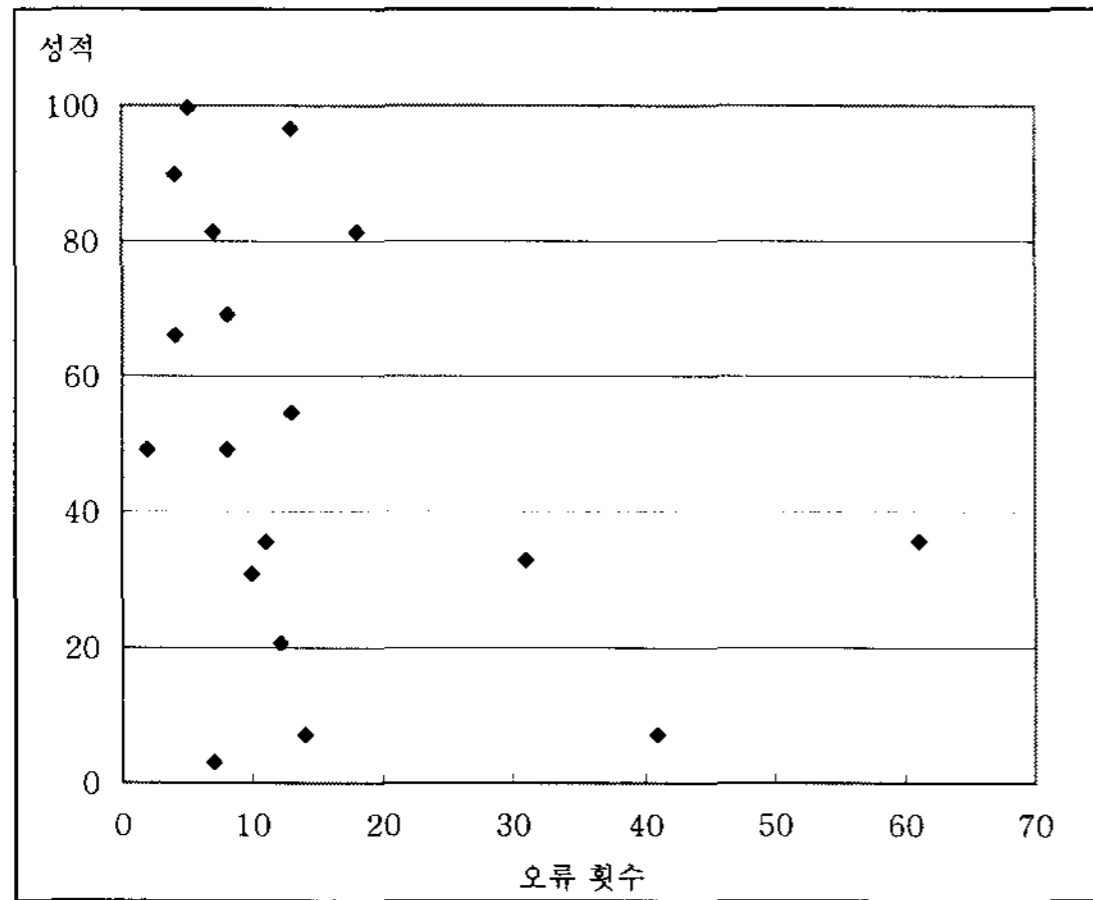


그림 6. 교육 후 오류 횟수와 영어 성적의 상관관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r=-0.359$).

그림 7은 1, 2차 실험에서 나타난 끊어 읽기 오류 변화 횟수와 영어 성적의 상관 관계를 나타낸다. 오류 변화 횟수는 1차 녹음의 오류 횟수에서 2차 녹음의 오류 횟수를 뺀 값으로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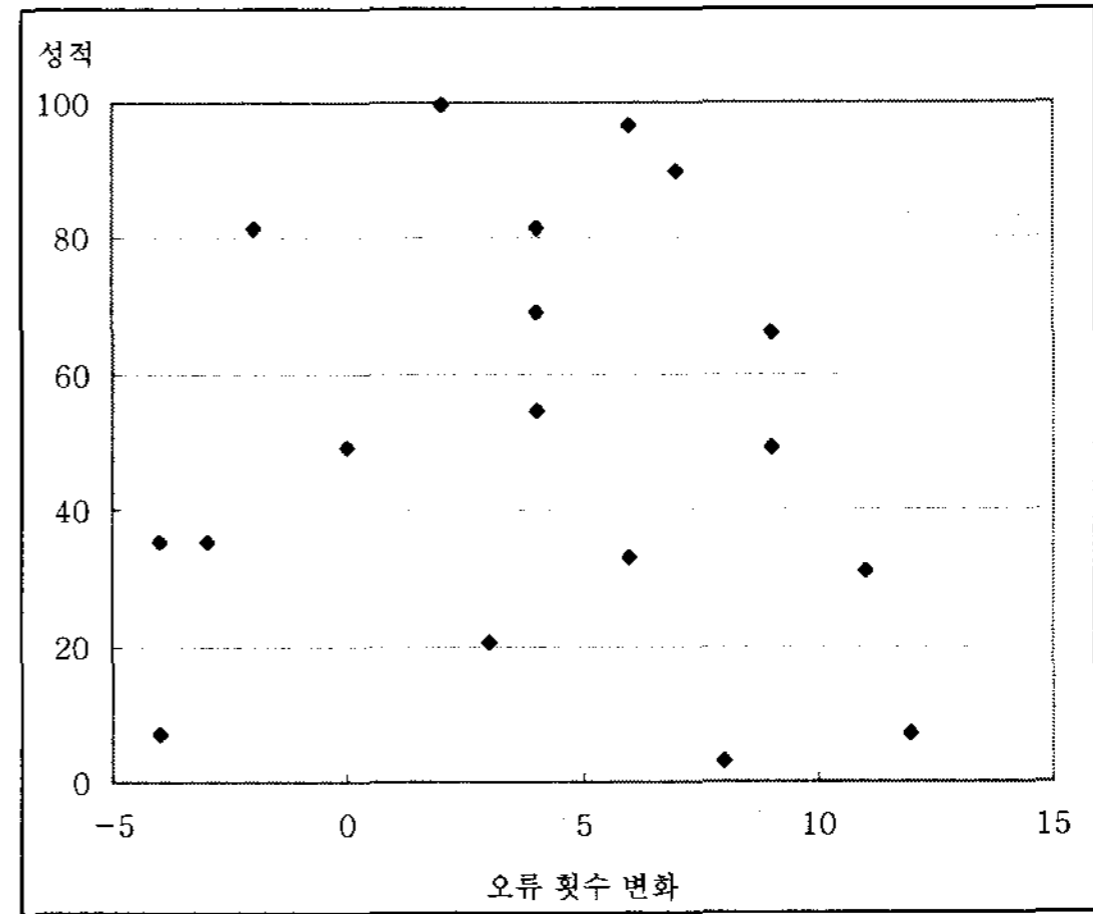


그림 7. 오류 횟수 변화와 성적의 상관관계

성적과 끊어 읽기 오류 횟수 변화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r=-0.03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끊어 읽기 오류와 영어 성적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성적과 관계없이 꾸준한 끊어 읽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IV. 결론

실험 결과를 살펴본 결과 실험에 참가한 대부분 학생들의 녹음 자료 분석에서 수많은 끊어 읽기 오류가 나타났다. 교육 후 일부 오류가 개선되었으나 모든 오류가 개선되지는 않았다. 또 학생들에게 지문에 끊어 읽기를 표시해 보게 하였더니 오류 횟수가 실제 녹음에서 나타난 오류 횟수보다 훨씬 적었다. 이는 학생들이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할 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사실은 학생들이 꾸준히 연습할 기회가 있다면 끊어 읽기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영어 교육에 있어 내용의 이해와 더불어 끊어 읽기의 실행에 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교육과 연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1] David Nunan, *Second Language Teaching & Learning*, Heinle & Heinle Publishers, pp. 219-220, 1999.